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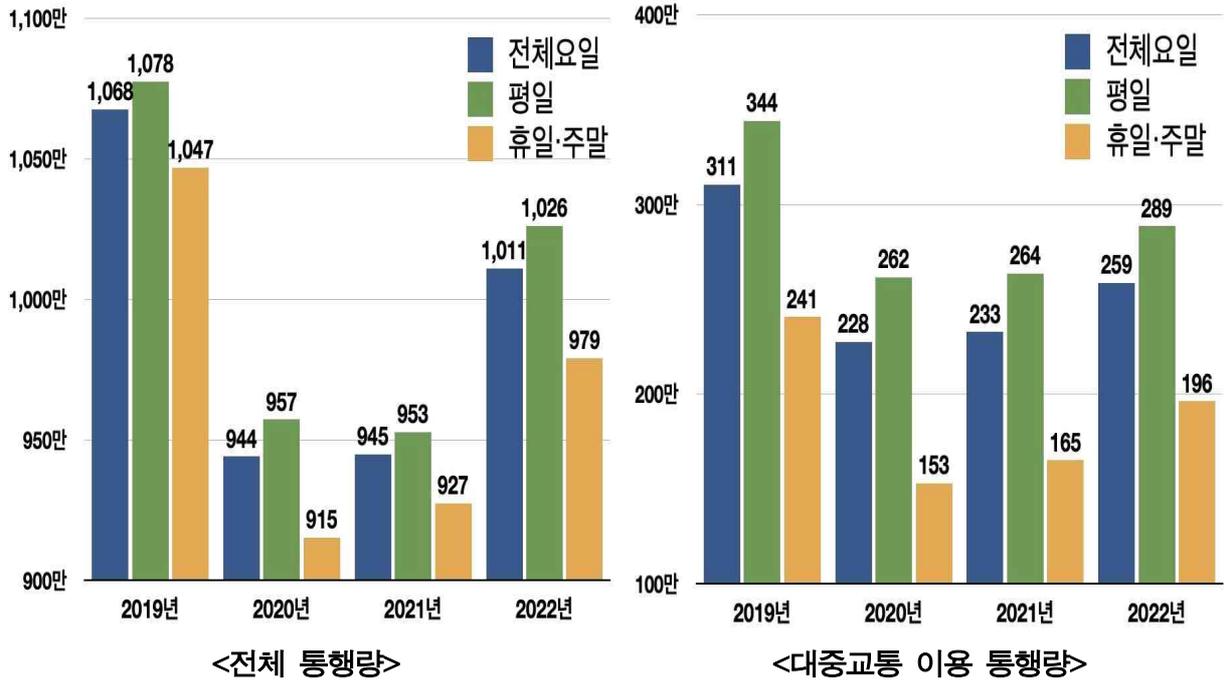
대도시권 광역 통행량 전년대비 7.0% 증가

- '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결과 발표... 대중교통 이용 1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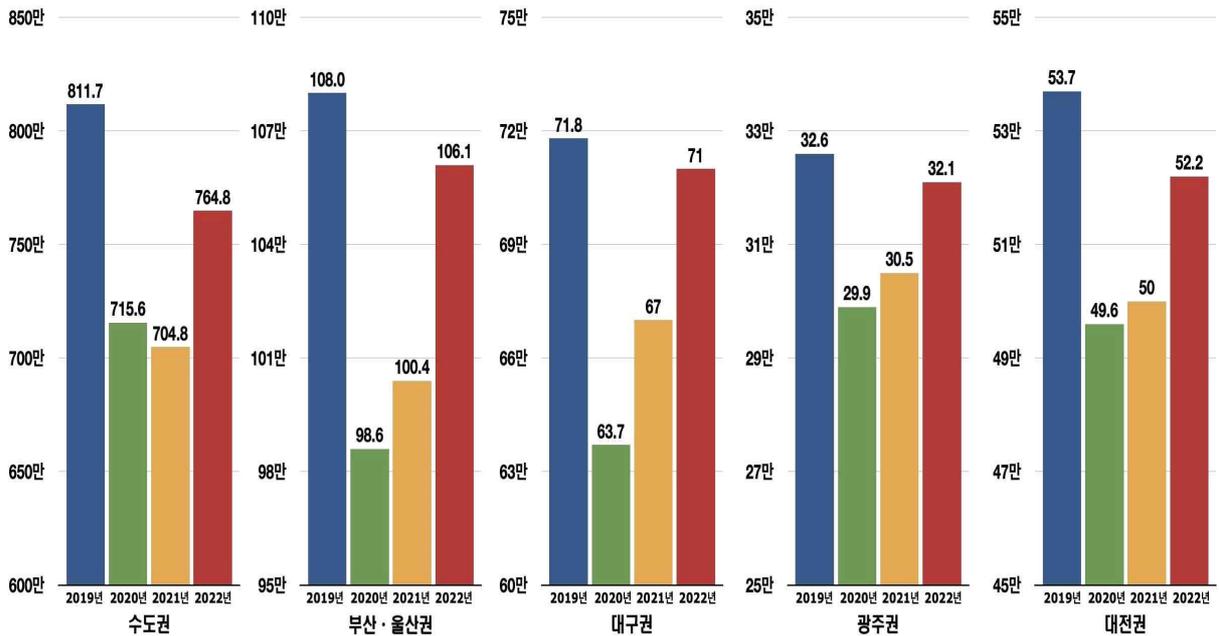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 다양한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결과를 6월 26일에 발표하였다.
 - *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진단과 개선을 위해 대광위에서 매년 시행하고(20년~) 있으며, 이번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함(22.7월~23.5월)
- `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일일 광역 통행량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7.0% (945만→1,011만 통행) 증가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대중교통 이용량은 더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11.1% (233만→259만) 증가하였고,
 -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대비 8.5% 증가하여 다른 권역들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통행목적지별로는 `19년 대비 레저스포츠(8.8%↑), 관광지(3.1%↑), 대형 아울렛(2.2%↑)은 증가하였으나, 상업지역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광역 출·퇴근 연평균 일일 통행 소요 시간은 전체 대도시권 116분 (출근 57분, 퇴근 59분)으로, `20년(119분) 대비 3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출근에 60분 이상 소요되는 통행비율은 39%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 120분, 부산·울산권 110분, 대구권 및 대전권 98분, 광주권 91분 순으로 나타났다.
-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올해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는 이용자 중심으로 광역통행의 이동성, 접근성, 연결성 등을 평가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로 확대 추진하여 정책 시사점을 세밀하게 발굴하고 광역교통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4-201-5080)
		담당자	사무관	임정묵 (044-201-5027)

□ 연평균 일일 광역통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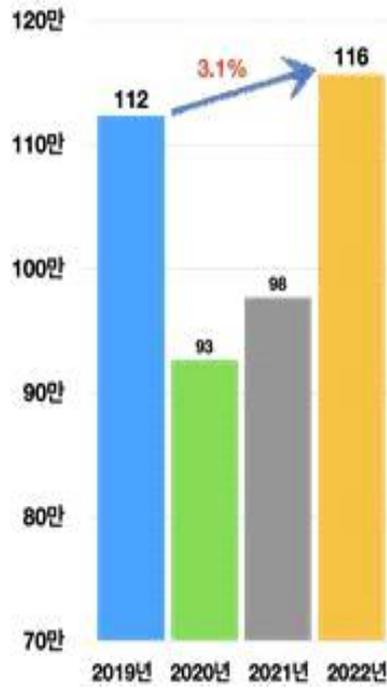
□ 권역별 연평균 일일 광역통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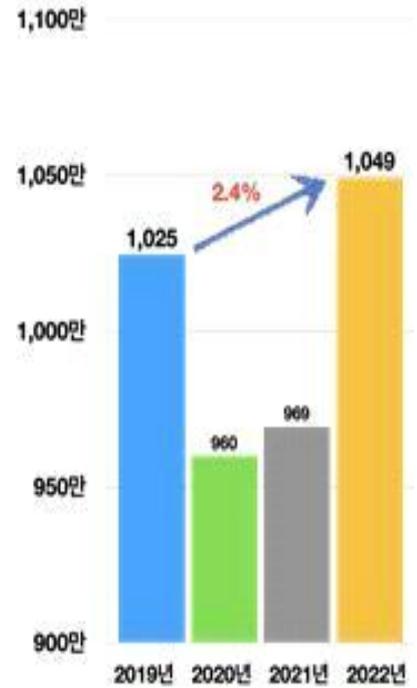
□ 통행목적지별 연평균 일일 광역통행량



<레저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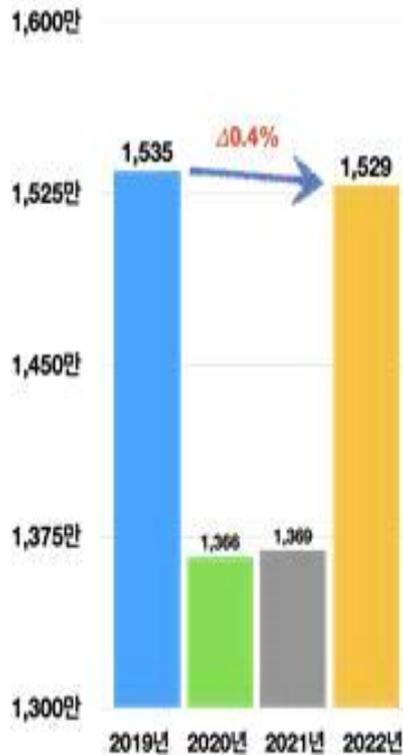
<관광지>



<주거지역>



<대형아울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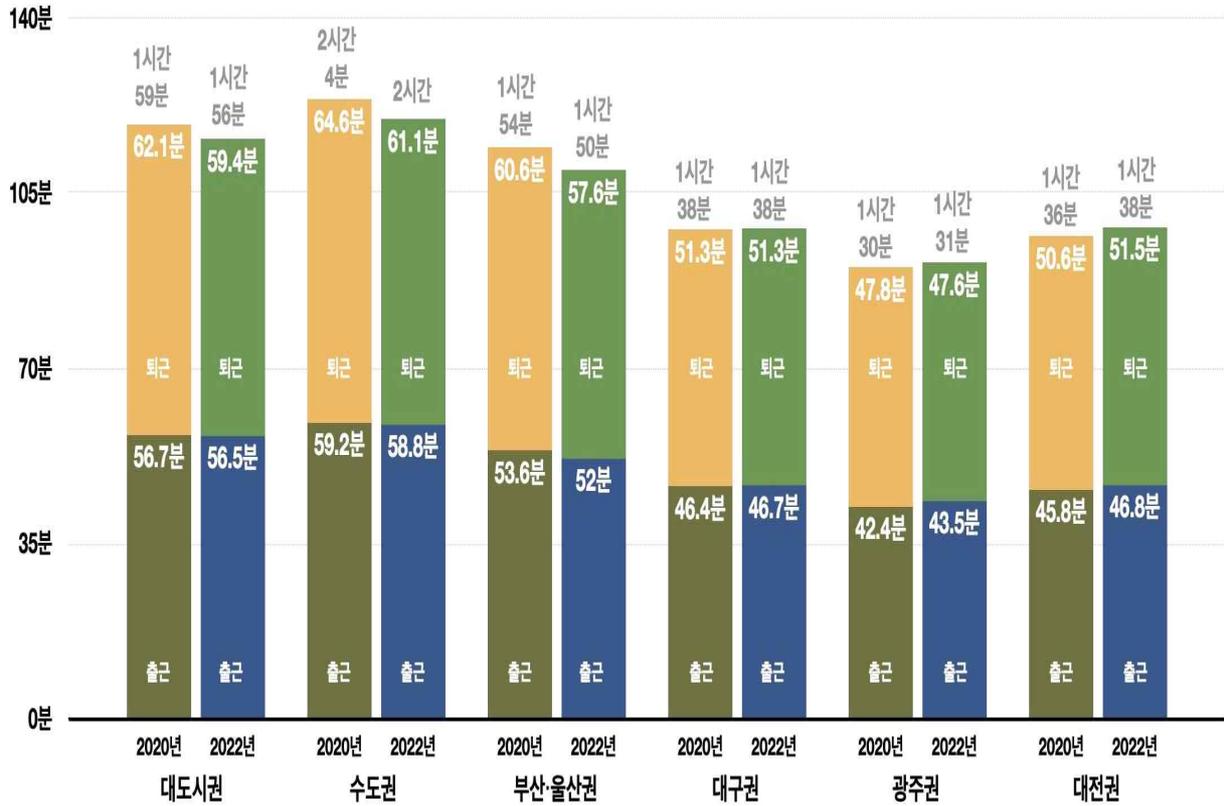


<사무지역>



<상업지역>

□ 권역별 광역 출·퇴근 연평균 일일 통행시간



□ 권역별 광역 출·퇴근 연평균 일일 통행시간 시간대별 비율

